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월간자산운용보고서

(준법감시인심사필2009-345호)

마이다스 백년대계 적립식 증권 투자신탁(주식)

2009년 11월

Fund Facts

투자 목적	시가총액 상위 우량주중 고배당 종목을 위주로 투자하여 주가상승 이익과 배당이익을 동시에 추구합니다.
운용개시일	2005-07-18
펀드 규모	160 억원
총보수	신탁보수 연 2.56%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환매시 이익금의 70%

펀드운용실적

구분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설정이후
백년대계적립식증권투자신탁(주식)	-0.65%	1.08%	13.29%	51.09%	76.61%
참고지표	-1.18%	-1.57%	9.68%	36.72%	40.29%
초과수익률	0.53%	2.65%	3.61%	14.37%	36.32%

*참고지표=(종합주가지수*80%+CD금리*20%)

수익률 추이

(2005.07.19~2009.11.30)

펀드매니저 리포트

지난 11월 한 달간 펀드 수익률은 -0.65% 였으며, 동기간 참고지표의 수익률은 1.18% 하락하였습니다. 참고지표대비 수익률이 좋았던 요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상대적으로 성과가 좋았던 철강과 음식료 업종에 대한 펀드내 편입비중이 높았습니다. 둘째, 개별적인 주가 상승요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포트폴리오에 편입한 고려아연, 한샘, 다음 같은 중형주의 수익률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주식시황

지난 11월 주식시장은 전강후약의 형태를 보였습니다. 10월 부담으로 작용하였던 각국의 출구 전략이 연내 실행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과, 기업들의 양호한 실적 및 내년 실적 전망 대비 현 주가가 저평가 되었다는 인식 하에 주식시장은 월초부터 꾸준하게 상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지만 종합주가지수가 1,630p까지 상승한 이후부터 주식시장은 등락세를 보였는데 이는 우리금융이 장내 블록딜(Block Deal)을 통하여 주식시장에서 자금 8,000억 이상을 흡수하고, SK C&C, GKL등 대형 종목의 IPO 등 공급측면에서 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도 주가 변동의 원인 중에 하나로 파악됩니다. 특히 월말 예측되지 않았던 중동의 두바이 채무 불이행 관련 뉴스는 단기간에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주었고 이로 인해 금융과 건설업종 위주로 주식시장은 큰 폭의 하락을 보이며 1,555p에서 마감 되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종합주가지수 1,600p 이상에서 국내 주식형 펀드의 환매가 진행되었습니다. 업종별 성과로는 음식료, 화학, 철강, 유통, 건설, 운수창고업종 등이 종합주가지수대비 초과수익을 기록하였고, 의약, 기계, 운수장비, 전기가스, 통신, 보험업종은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펀드에서 현물주식은 87% 내외 수준에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80% 내외 수준은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로 구성하며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중 고배당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식보유분의 나머지부분은 중소형 고배당 종목 중에서 엄선한 마이다스고배당주로 구성됩니다.

① 블루칩배당포트폴리오

블루칩 배당포트폴리오 중에는 오리온, POSCO, 삼성엔지니어링, 롯데쇼핑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우리금융, 현대차, 삼성화재 등의 수익률이 저조했습니다. 지난 달은 현대건설, 우리금융, 현대백화점, 삼성전자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신한지주, KB금융, 삼성물산, 현대차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② 마이다스고배당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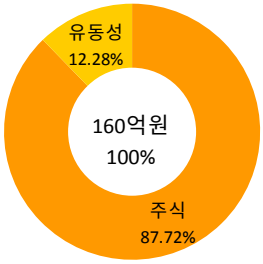
마이다스고배당주 중에는 고려아연, 다음, 성광벤드 등의 수익률이 양호했으며 대한제강, 넥센타이어, 아트라스BX 등의 수익률이 부진했습니다. 지난 달은 효성, 삼성전기, 휴켐스 등을 순매수 하였으며 LG하우시스, 아트라스BX, 중국원양자원, JS전선 등을 순매도 하였습니다.

커버드콜 전략

주가하락 위험을 줄이고 추가수익을 얻기 위하여 주식투자와 함께 콜옵션을 매도하는 커버드콜 전략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11월 만기 옵션은 227.5에 매도 하였으며 11월 옵션 만기일 KOSPI200지수가 206.67로 종료됨에 따라 매도 콜옵션은 행사되지 않고 옵션 프리미엄 수입을 펀드수익으로 실현하였습니다. 12월물 콜옵션은 행사가 220.0를 매도하였습니다. 11월 말 현재 매도한 콜옵션에서 현재 이익을 보고 있으나 12월 만기일까지의 주가 흐름에 따라서 손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포트폴리오 현황

[2009.11.30 기준]



상위보유종목

[2009.09.30 기준]

(순자산총액 비중 64.03%)

1. 삼성전자
2. POSCO
3. 신한지주
4. 현대건설
5. KB금융
6. 현대차
7. 한국전력
8. 하나금융지주
9. 삼성전기
10. 현대제철
11. KT
12. 현대모비스
13. SK에너지
14. LG화학
15. SK텔레콤
16. 기아차
17. LG
18. LG전자우
19. 현대해상
20. 동부화재

본 상품은 예금자 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며 판매회사와 판매회사의 어떤 관계회사도 그 수익이나 원금을 보장하지 않으며 그러한 의무도 없습니다, 본자료에 사용된 정보들은 신뢰할 만한 자료에 바탕을 두고 있으나 정확성과 완전함이 보장되진 않으며, 본 자료상의 운용계획은 시장 상황의 변동이나 운용 전략상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현수익률로 미래의 수익률을 예측하거나 보장할 수 없으며, 상품에 대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자료는 투자권유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